Lightness of Pop Art

APARTMENT P

취재 이지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적한 주택가. 1930년대 지어져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APARTMENT P는 부부와 네 자녀의 단란한 보금자리다. 직업 특성상 밀라노를 자주 방문하는 클라이언트는 그의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원했다. 디자인을 담당한 nomade ARCHITETTURA E INTERIOR DESIGN은 따뜻한 뉴트럴 톤 아래 가구와 독특한 아트웍을 아울러 편안하면서 감각적인 주거를 선보였다.

종종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클라이언트에게 APARTMENT P는 타지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이다. 클래식한 요소로 고전적인 매력을 전하면서도 키치한 유희가 넘치는 가족만의 안식처 APARTMENT P의 이야기를 전한다.

클래식한 공간에 키치한 유희를 접목한 APARTMENT P는 가구와 독특한 아트웍을 아울러 편안하면서 감각적인 공간으로 완성됐다.

Design / nomade ARCHITETTURA E INTERIOR DESIGN · Selina Bertola
Location / Milano, Italy
Area / 200㎡
Photography / Simone Furiosi

약 60평의 너른 실내는 거실과 부부 침실, 자녀 침실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관을 중심에 두고 각 실이 연결된다. 화사한 화이트 컬러를 적용한 현관에 들어서면, 조가비를 이어붙인 듯한 샹들리에와 중앙의 짙은 청록색 소파가 앤티크하면서 클래식한 감각을 일깨운다. 또 각 실을 막힘없이 연결하도록 아쿠아 글라스 중문을 설치했다. X자로 교차시킨 중문의 블랙 컬러 프레임은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데커레이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각종 패브릭을 사용해 온화하게 조성한 거실은 주름진 커튼을 통해 햇살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바닥에 러그를 깔아 안락함을 줬다. 인물을 클로즈업한 그래피티 스타일의 강렬한 아트웍이 눈에 띄는데, 비비드한 색상과 볼드한 블랙 컬러 프레임이 어우러져 유쾌하게 공간의 변주를 꾀했다. 사각 프레임은 천장 조명과 테이블에 반복돼 조형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조명에 사각 프레임을 반복해 조형적 아름다움을 전한다.

각종 패브릭을 사용해 차분하고 온화하게 조성한 거실은 강렬한 그래피티 스타일의 아트웍을 설치함으로써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주름진 커튼으로 햇살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테이블의 나뭇결이 빛을 받아 더욱 도드라진다.

전체적으로 밝은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를 적용한 주방은 중앙에 아일랜드 작업대를 배치했다. 대리석 원판의 거대한 마블링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일깨운다.

X자로 교차시킨 블랙 컬러 프레임의 유리 중문은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데커레이션 오브제로 자리한다.

가족의 침실이 위치한 복도는 양옆 화이트 컬러 벽면과 대비되도록 맞은편에 수풀이 프린트된 벽지를 마감함으로써 재미를 더했다. 벽채 몰딩 선에 맞게 옷장을 매입해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면서 주거에 필요한 수납 기능 또한 만족시켰다. 베이지에서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색상을 매치한 부부 침실은 한쪽 벽면에 패브릭으로 마감한 옷장을 짜넣어 공간에 은은하게 녹아들게 했다. 침대 헤드 위를 장식한 흥미로운 캐릭터 아트월은 클라이언트의 팝적인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부 침실 입구에 마련한 파우더룸.

화이트 컬러의 복도 벽면과 대비되도록 맞은편에 수묵이 프린트된 벽지를 적용했다.

밝은 베이지 톤의 부부 침실. 클라이언트의 팝적인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캐릭터 아트웍이 포인트다.

대리석의 섬세한 마블링 무늬로 생동하는
감각을 일깨우는 부부 욕실.

패브릭 소재의 옷장이 공간에 은은하게 어우러진다.

아기자기한 가구와 소품이 어우러지는 자녀 침실. 둥근 외형의 니트 스툴과 소파를 함께 두어 포근하고 사랑스럽다.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이들은 창가 소파에 앉아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아담한 공간에 청량한 블루 컬러 패브릭으로 생기를 띠는 자녀 침실.
조명 셰이드로 벽면에 그림자를 드리워 재미있는 패턴을 완성한다.

핑크, 민트 등 생기 넘치는 색상을 적용한 자녀 침실은 니트로 짠 스툴을 함께 두어 포근하고 사랑스럽다. 창가에 별도로 마련한 소파에 앉아 아이들은 마치 동화 피터팬의 한 장면처럼 즐거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차분한 컬러감으로 일상의 따뜻함을 재현한 APARTMENT P는 클라이언트의 색깔을 가득 담아 먼 곳에서도 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가족에게 안락함을 선사하는 최적의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강조한 자녀 욕실.